



## 담대한 투자와 선진의료경영으로 글로벌 의료기관 본격 출항

### 고려대 안암병원장 김창덕 교수 공식 취임 "강한 도전정신으로 세계 도약 이끌겠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JCI 인증을 올해 한 번만에 통과하는 쾌거를 통해 숨겨진 저력을 당당히 드러냈다. JCI 인증획득 과정에서 채택한 탄탄한 의료프로세스와 최근까지 진행된 담대한 투자와 선진의료경영을 접목해 국내의료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안암병원은 첨단의학센터 신축을 비롯한 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특성화 클리닉을 여러 개 만들어 안암병원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이들 특성화센터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3차 질환 치료에 임상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차별화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고려대 안암병원의 미래 도약을 이끌 새 수장인 제 24대 김창덕(金暢德, 5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11월 12일 오전 9시 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고려대 이기수 총장, 손창성 의무부총장, 문영목 의대교우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김창덕 신임 안암병원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강한 사명감을 갖게 된다"고 운을 뗀 뒤,

"새로운 변화와 자신감, 강한 도전정신으로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신임 안암병원장인 김창덕 교수는 53년생으로 77년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美 로체스터 의과대학에서 연수했다. 이후, 안암병원 내시경실장, 건진센터 소장, 소화기내과 과장, 소화기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부이사장, 한국세포스트레스학회 회장, 대한취담도학회 회장 등을 맡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덕 안암병원장

#### [제 24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취임사 요약]

우리는 지금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병원계의 경영 압박 요인 등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합심 협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한 도전정신으로 우리 병원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 교수님과 교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소통과 교감, 토론과 설득으로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일의 안암병원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CI 재인증과 환자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고, 현재 의료 안전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의 의로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재 진료로 더욱 전문화,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나 고객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신축중인 의학관, 중추중심 지역임상시험센터의 기존 사용하던 공간을 활용하여 병원 규모를 확장하고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접점부서를 비롯해 병원 모든 교직원이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미래 의료산업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해외환자유치

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JCI 재인증 준비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 및 전략을 재수립하겠습니다.

병원 자체 수가체계 및 수익모델 개발, 외국인 전용 의료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할 국제진료단을 더욱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의료기관 및 연구소, 민간 의료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체결하는 등 폭넓은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진정한 연구중심의 대학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분야의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임상시험센터와 각종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국제연구과제들이 유치되어 의료진들의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 각 실에서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로, 저는 교직원의 복지 증진, 간호사 인력 증원, 전공의 처우개선에도 힘을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상하좌우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신바람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이전부터 기획되고 거론되었던 첨단의학센터 건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안암병원의 비전인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참병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으로 병원발전에 헌신해주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재임기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깊어가는 가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주변의 단풍이 아름답다.

## 색다른 병원풍경 가을에 만난 안암병원은?



정문 진입로에서 만난 풍성한 단풍



햇살나눔공원에서는 이런 모습이



깊어진 가을을 느끼게하는 정문앞 잔디광장 감나무



산책로에서 바라본 안암병원의 웅장한모습

안암병원은 환자들이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수목을 가까이 두어 환자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날씨가 추워져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 남산에서 찰칵! 우리 한마음^^ 간호부 단합도모하GO 기분전환도 하GO 일석이조 쩌~~잉!



귀 기울여요



신규의 서클픔



한마음 한몸 KUMC



소원을 말해봐



인증JCI



행복한 동행



깊어가는 수술실 사랑



하나가 되어

안암병원 간호부는 최근 남산에서 개최했던 JCI 인증 기념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사진촬영도 실시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단합을 도모하고 분위기도 전환하는 시간을 가진 간호부 여과 부서가 각양각색으로 표현한 사진들을 감상해보자

# 병원에 생긴 "친절클리닉"을 아세요?

정부평가 환자만족도 부문 AA등급 다 이유있네! / 친절리더, 각 부서 고객서비스 클리닉 실시



안암병원은 각 부서의 구성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해 대화하는 등 더욱 친절할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부서별 고객만족을 위한 집중 고객서비스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 부서는 친절교육을 통해 친절강의와 실전연습으로 구성된 이 교육을 통해 고객 응대 시 더욱 친절할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다. 또한, 평소 자신의 근무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며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교육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친절리더 오명옥 수간호사(53병동)는 "친

절의 기본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바쁜 업무 속에서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고객 응대법에 대해 다시 환기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암병원은 친절리더를 양성해 친절마인드와 내원객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 직원의 서비스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친절리더팀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친절리더팀은 외래 및 병동, 검사실 등 고객 접점부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교직원 중 각 부서별 정예요원들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안암병원은 특히 고객만족도를 극대화 하

기 위해 짐 운반용 카트 비치, 유모차대여, 찾아가는 퇴원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도 함께 시행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사하는 의료기관평가에서 안암병원은 2008년 최고 수준인 환자만족도 부문 "AA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내 대형병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부서 이사람

## 신축 10주년을 맞은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 여기가 호텔이야 장례식장이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은 1992년 처음 장례문화를 선도하며 더욱 쾌적하고 유족이나 조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10월 초현대식으로 신축하고 최고의 장례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번호에서는 장례에 관한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고품질의 장례서비스를 정찰제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안암병원 장례식장을 소개한다.

#### 5성급 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 국내 정상급 호텔 요리사 상주해 음식 제공

넓고 깨끗한 예식실은 종교별로 구분되어있으며 호텔수준의 고급스런 조문실과 접객실에서부터 상주와 유족을 위한 수면실과 샤워실 조문객을 위한 넓은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추

고 고품격의 쾌적한 장례환경을 제공한다. 장례의식과 관련된 절차들은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인종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이런 절차 속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은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함과 동시에 내 가족의 장례와 같이 유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엄숙하면서도 편안한 장례식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고급 브랜드의 상복은 맞춤형으로 장례용품은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제품만을 엄선하여 사용한다. 호텔 수준의 식당 음식은 일류 한식전문인 세종호텔에서 24시간 요리사들이 직접 요리하여 가장 위생적이면서 저렴하게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각종 장례서비스는 물론 양질의 장례용품과 음식 그리고 장례전후의 알림서비스와 삼우제 등의 각종 제례진행까지 고객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장례의식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장의 진행과 화장예약 등의 대행까지 기타장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유족의 슬픔과 함께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웰 다이잉(Well-dying)"의 장례문화를 실현하며 20여년의 노하

우로 80여명의 모든 임직원이 국내 최고의 장례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고인과 유족의 아름다운 이별을 실현하고 고객에 맞춘 보통 승용차에서 링컨콘티넨탈 리무진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서비스로 고인의 가시는 길에 가장 격조있는 배려의식과 품격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암병원 장례식장은 24시간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1급 장례전문가를 비롯해 장례행사 복지사 및 도우미로 구성된 80여명의 임직원이 있는 안암병원 장례식장은 전통문화의 장례문화를 그대로 계승한 초현대식으로 진행한다.

안암병원 장례식장은 초현대식 신축개업 10주년을 맞이하여 고객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우대권을 제시하면 빈소이용료의 30%를 할인하는 서비스를 2010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교직원들은 빈소사용료의 40%, 교우는 15%, 교직원의 소개로 이용할 경우 10%의 이용료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은 녹지공간이 넓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300여대의 넓은 주차공간에 상주는 3대까지 무료주차 가능하며 병원정문에서 장례식장까지 셔틀차량을 수시운행(13시~22시) 하고 있다.

단순한 장례의 행사가 아닌 고객의 아픔을 내가족의 아픔처럼 함께하는 김병옥 안암병원 장례식장 운영팀장은 "안암병원 장례식장은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며 장례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새로운 장례문화의 장을 선도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최고의 장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조회 가입으로 인한 2중적인 부담을 갖는 상조문화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각종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암병원 장례식장 : (02) 923-4442, 927-4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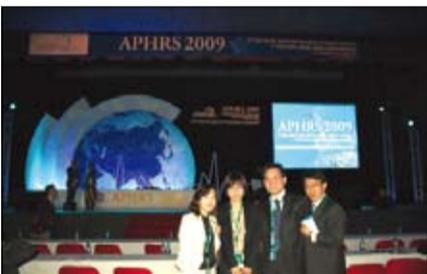
글 사진 | 강용길(핵의학과) / koreatzp@korea.ac.kr

## 한마음 등반대회로 건강도 지키고 화합도 다져요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10월 17일 북한산에서 '한마음 교직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반대회에는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보였다. 이날 새벽까지 내린 비 덕분에 더욱 맑은 공기를 마시며 등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상조건이었다. 이번 등반대회는 혜화문 청수장-보국문-대동문-우이동 의 코스를 따라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등반대회 후에는 석식을 함께 하며 직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한마음 등반대회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심신단련을 통해 밝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직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등반대회 후 단합의 시간은 교직원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서로를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JCI인증획득과 탁월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는 안암병원은 향후 비전과 병원발전방향을 밝혀 국내의료는 물론 세계선도병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큰 그림을 이어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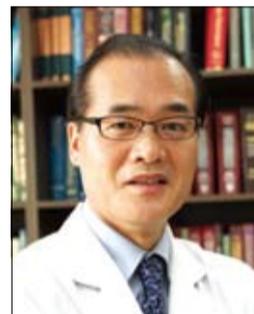
## 심혈관센터 고경정·성주용 간호사, 해외 학회 참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고경정·성주용 간호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태평양 심장 리듬 연구회의 과학 학회(Asia Pacific Heart Rhythm Society Scientific Session : APHRS 2009)' 및 '제5회 아시아 태평양 심방 세동 심포지엄(Asia Pacific Atrial Fibrillation Symposium : APAFS

2009)'에 참가했다. 이번 학회는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심장 리듬 문제에 대한 임상적 사례 및 조사연구 결과와 환자관리방법 등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심방 세동을 포함하여 심실 부정맥, 인공 심장 박동기 및 제세동기의 치료, 심부전 관련 어려운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부정맥 전문인(Allied Professionals)을 위한 기본적인 부정맥 기전과 치료방법, 심방 세동 시술 방법 및 과정, 인공 심박동기, 제세동기에 대한 추적 관찰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심장 리듬의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의 세심한 간호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 '뇌수막종 주변부 부종'의 원인 밝혀냈다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강신혁, 박경재 교수팀(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10월 16일에 열린 2009년도 제49차 대한신경외과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임 언 학술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논문 'Influence of Interleukin-6 on the Development of Peritumoral Brain Edema in Meningioma (뇌수막종 주변부 부종의 발생에 미치는 IL-6의 영향)'을 통해

종양 주변부 부종의 발생 기전을 밝혀 그 성격을 인정받았다. 뇌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 중의 하나인 뇌수막종은 약 60% 정도에서 종양 주변부 부종을 수반하는데, 이 부종은 수술 전·후에 환자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발생·악화시키지만 그 발생 기전이 뚜렷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 모교발전 우리가 일군대! 동문들의 아름다운 기부



고대의대 21회 동기회가 모교에 의학발전기금 1,400만원을 기부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1회 여자 동기회원들은 10월 10일 세종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나홍식 고대의대 학장에게 1,400만원 의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21회 동기회는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동기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모교발전을 위한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기부도 동기회원들이 모교발전을 위한 적금을 만들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선뜻 기부한 것이다. 특히, 2003년 2,100만원 기부에 이어 또다시 기부할 만큼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동기회원들은 "최근 모교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뻐뻐했다. 더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작은 정성이나마 모교가 국제적인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최근 문영목 고대교우회장 1억원 기부를 비롯해 동문들의 모교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가 잇따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 복막투석교실 성료, 체험프로그램으로 큰 호응 얻어



안암병원 신장내과(과장 조원용)는 11월 10일 오전 10시 8층 대회의실에서 복막투석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는 약 100여명의 복막투석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개최한 복막투석교실에서는 ▲ 복막투석환자의 고혈압관리 ▲ 투석환자의 보험혜택 ▲ 식이요법 등

환자와 일반인들의 복막투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실시했으며, 특히 식이요법강의에서는 직접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신장내과 김형규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환자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생활습관개선 등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암병원은 복막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봄, 가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복막투석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 의료원, 아프리카에 '생명의 보건의소'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아프리카에 보건의소를 세웠다. 의료원 아프리카 봉사단은 지난 10월 28일 의무부총장 집무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 내과 중환자실 김영하 간호사로 구성된 봉사단은 11월 6일 까지 9일간 마사이 원주민들을 치료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고대 의료진들이 사진작가 김중만, 음악인 김종진, 그룹 F(x), 미술사 이은결 등과 동행해 다각적인 아프리카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에이즈는 물론 기초적인 질병조차 보살피지 못해 안타깝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의료현실. 그동안 수많은 NGO들이 손길을 뻗고 의약품을 지원해왔지만 일회성의 효과에 그쳤다. 고대의료원 아프리카 봉사단은 지속가능한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시설이 전무한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내 마사이 촌에 보건의소를 마련하고 인술을 실천했다. 특히, 탈장환자가 많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고려해 봉사단은 전기시설 없이도 수술이 가능한 장비세트로 수술을 실천했다. 한편, 고대의료원은 국제 재난지역 의료봉사, 소외계층지원 등으로 국내외에 인술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의료봉사의 자세한 내용은 12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원, KERI와 교류협력 협약



고려대의료원이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손잡고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한다. 양 기관은 손창성 고려대 의무부총장, 유태환 한국전기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고려대의료원 본부회의실에서 의료기술, 의료기기 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류협력 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분야의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임상시험 협력 ▲인력교류 ▲연구시설, 장비 및 부속시설의 공동 활용 및 지원 ▲학술자료, 정보, 출판물의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고대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안산분원에 포진한 의료IT융합연구본부 및 SOI-Korea 센터를 통해 의료영상진단기기, 광학의료기기, U-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건강한 노후는 간호사와 함께, 1004 Day 주간행사 개최



안암병원 간호부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층 로비에서 강북구 치매센터(소장, 박진우 기획실장)의 후원으로 '건강한 노후는 간호사와 함께 - 기억을 위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1004 Day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주간행사는 1004 Day를 맞이하여 감성간호를 실천하고 고객감동의 완성을 위해

외래 방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상담 및 치매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내원환자 및 보호자 680여명이 참여하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혈압 및 혈당과 관련된 건강상담과 함께 건강증진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된 리플렛 배부 및 한국형 간이 선별 검사지를 활용한 실제적인 치매상담이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간호사들의 봉사 활동이 치매에 관한 두려움을 없애고 노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기여코자 진행됐다. 

## 간호부, 제 8차 중환자전문간호과정 시작



안암병원 간호부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안암병원 중회의실에서 '제 8차 중환자전문간호과정' 개최식을 거행했다. 11월 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중환자 간호교육과정'에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심혈관계, 뇌혈관계, 신경계 등 각종 질환에 대

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창덕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과정을 통해 중환자간호에 관련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간호사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수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최고의 간호·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암병원은 전문성향상을 위해 전문간호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 2009년 상반기 의무기록 정리 최우수부서 '이비인후과'



안암병원은 10월 28일 병원장실에서 2009년 상반기 의무기록 정리 우수 부서 및 전공의를 포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비인후과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산부인과, 피부과가 선정됐다. 또 우수

전공의에는 내과 최원재 전공의와 성형외과 윤원영 전공의가 선정됐다. 이번에 실시된 '의무기록 정리 우수 부서 및 우수 전공의' 포상은 의무기록 관리위원회에서 의무기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부서는 의무기록 정리율, 병동 차트 반납율, 경과기록 충실도, 전공의는 의무기록 충실도, 완결도, 다작도 등 각 3가지 선정기준에 준거하여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한편, 안암병원은 의무기록 정리 우수 부서와 우수 전공의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부서와 전공의를 격려하고 있다. 

# 간질환자, 결혼도 취업도 힘들다. 왜 일까?

간질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일부 환자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런 돌발 증상을 일으키는 발작이 특징이다. 우리는 간질(발작)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인식하고,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취할까? 비간질인과 간질인 사이에 간질에 대한 이해, 인식 및 태도에는 차이는 없는 것일까? 간질인은 다른 간질인에 대해서 모두 차별없는 태도를 가질까? 간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전국 5개 대학병원(건국대, 계명대,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을 방문하는 18세 이상 성인 간질인을 대상으로 간질에 대한 이해,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성별, 연령별 구성이 비슷한 비간질인도 같은 설문지를 조사하여 간질인과 비간질인 사이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총 1,924명(간질인 384명, 비간질인 1,54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은 크게 간질에 대한 친밀도, 이해, 그리고 태도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설계했다.

먼저 간질에 대한 친밀도는 간질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실제로 발작을 하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간질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간질의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간질인이 비간질인에 비해서 좀 더 올바르게 간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으나, 정답의 비율이 60%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간질의 원인이 정신질환이나 유전질환이라고 답한 경우도 20% 이상이였으며, 간질은 불치의 병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50% 정도나 됐다. 간질에 대한 태도는, 간질인은 다른 간질인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였으나, 비간질인은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질인은 비간질인에 비해서 교육수준과 취업율이 낮았고,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차별이 여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간질인은 다른 간질인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가지려는 태도를 취했으나, 본인의 자식들이 다른 간질인과 교제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간질이 유전질환이라는 잘못된 지식과 낮은

자존감 등이 원인이 아닐까 추정한다.

이런 경향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겪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서양에 비해 동양권 국가에서 좀 더 부정적인 태도나 사회적 차별이 좀 더 심한 경향을 보여, 사회 관습이나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행인 것은, 국내 다른 연구자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20여년전에 비해서 간질에 대한 이해도 및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0년전에 비해 진료실에서 만나는 요즘의 젊은 간질환자들은 결혼 전 교제시부터 이성 친구를 같이 데려와서 터놓고 얘기하고 같이 결혼 및 임신 상담을 하며, 운전 문제, 군대 문제 등 각종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간질학회 및 간질협회의 지속적인 노력, 경제 및 문화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이 태도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이 되면서 이런 변화가 수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간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부정적 태도를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가야 할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간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정확한 이해 및 인지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에필리아 설문 조사에서 보여 주듯이, 간질인 및 비간질인 모두에게 동일한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소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즉, 간질인에게는 간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아울러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겠고, 비간질인인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간질은 뇌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후천적인 뇌 질환의 하나이지 정신질환이나 유전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간질인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국가, 환자, 의료인 및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경과 정기영 교수  
문의 | 신경과 02)920-5510

## 친절한 눈맞춤은....

친절리더칼럼

사전을 통해 찾아본 친절이란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자를 통해서보면 친절은

親(친): 사랑함, 친할, 겨레  
切(절): 끊음, 정성스러움, 간절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친절의 해당하는 영어의 Kindness는 애정(affection), 호의(goodwill)의 뜻을 담고 있으며, 그 어원은 가족, 친족을 의미하는 kin입니다. 즉, 친절이란 가족이나 친족과의 관계처럼 따뜻하고 가깝고 친근한 것이며 애정과 호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성을 다하는 사랑의 인간관계" 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분들을 대하다보면 사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친절' 하게 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 친절하게 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절이 부족하다 느껴지는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고객응대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눈길을 피하는 그 순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들은 바로 또 다른 컴플레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친절 서비스는 눈맞춤에서 시작해서 눈맞춤으

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눈맞춤은 친절한 느낌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눈맞춤은 親切(친절한) 느낌을 전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맞추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고 기계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거나 컴퓨터 자판을 보면서 고객과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몇초 동안이라도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고 관심어린 시선을 통해 감정교류를 한다면 우리 눈맞춤의 강력한 파워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TIP!!

눈맞춤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급적 몸의 방향(얼굴, 어깨, 손끝, 발끝)도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뚫어지게 주시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간과 상대방의 말하는 입술을 번갈아서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눈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글 | 친절리더 박미선 (고객서비스팀)

병원생활 TIP

## 중증환자 등록으로 부담을 줄이세요

### 중증환자급여기준

안암병원에서 암,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원 내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5년 동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수술당일을 포함해 입원기간 최대 30일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환자로 등록을

한 환자 및 심장·뇌혈관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암환자는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등록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감이 적용 되는 질환은 크게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의 수술이며, 요양급여비용경감혜택 적용가능한 질병 목록과 경감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 심장 질환

- |                                |   |
|--------------------------------|---|
| 가. 심장의 양성신생물 (D15.1)           | 아. 대동맥류 및 박리 (I71)                        |
| 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 (I01)       |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류, 대동맥염 (I79.0, I79.1) |
| 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 차. 대동맥활중후군 (M31.4)                        |
| 라. 허혈성 심장질환 (I20~I25)          | 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Q20~Q25)                  |
|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 타.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4, Q26.8, Q26.9)  |
|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1)        | 파. 가슴의 혈관, 심장의 손상 (S25~S26)               |
|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I70.0)          |   |

#### 뇌혈관 질환

- |                           |                                 |
|---------------------------|---------------------------------|
| 가. 뇌혈관 질환 (I60~I67)       | 라.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
| 나. 목동맥의 동맥류 (I72.0)       | 마. 머리내 손상 (S06)                 |
| 다. 후천성 동정맥 색질(누공) (I77.0) |                                 |

# 옛! 하면 이미 늦어요. 해결하자! 심장 이상의 핫라인, "흉통"

## ◇ 올바른 생활습관만으로 쇠심줄 같은 심혈관 유지

최근 우리나라도 수십 년 사이 심장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 증가율로만 본다면 이미 서구사회를 앞지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유병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심장질환은 물론 돌연사 또한 중장년층 뿐 만 아니라 30대, 20대 젊은 층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심장과 관련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돌연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발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벼운 통증이라도 무시코 넘기지 말고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습관을 바꾸기만 하더라도 여러 위험인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연과 절주, 커피, 홍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삼가야 한다. 비만, 특히 복부비만은 심장에 독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며, 심한 운동, 흥분, 과식, 무리한 사우나, 갑작스런 추위에의 노출은 피해야 한다.

## ◇ 큰 일교차, 가슴 통증이 있다면 심장질환 의심해 보아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갑자기 찬바람을 접하면 가슴이 빠근하고 두근거림을 느낀다거나, 야외 나들이와 가벼운 운동에도 가슴이 쥐어짜듯 답답하거나 찌한 느낌,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면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는 심장 및 심혈관계 이상에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상은 심장혈관이 좁아졌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혈관이 50% 이상 좁아져야 나타나기 때문에 무시코 지나치다가 큰 변을 당할 수 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인 협심증은 전형적으로는 가슴 중앙에, 빠근하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며 때때로 왼쪽 어깨 또는 왼쪽 팔의 안쪽, 윗배 쪽이나 턱 쪽으로 오기도 한다. 협심증 중에서 안정형 협심증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서 육체적으로 쉬고 있을 때는 통증이 없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걷는 등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쉬면 2-3분 이내로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안정형 협심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불안정협심증으로 발전하는데 최근 1개월 이내에 진행된 것으로 운동할 때 이외에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 통증이 발생하며 대개 5분 이내이지만 10분 정도까지 가기도 한다.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협심증의 정도를 넘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급성 심근경색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막힌 혈관을 즉시 뚫어주지 않을 경우 심근의 괴사로 인해 돌연사할 수 있으므로 크고 작은 흉통이든 가슴의 통증이 느껴질 때는 가벼이 여기지 말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 ◇ 자가 증상 느껴지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심장검사로 예방해야

흉통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 흉부 X-선 촬영이나 심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의 운동으로 심장박동과 혈압을 증가시켜 심전도상 심장혈관 순환 장애의 여부를 판단하는 운동부하 심전도를 비롯해, 24시간 보행 심전도, 심장의 구조 뿐 만 아니라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여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대동맥 질환, 심근경색 진단에 유용한 심장초음파와 흉통을 일으키는 심장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심장동위원소 검사 및 관상동맥 조영술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관상동맥 조영술은 심장혈관의 폐쇄나 병변을 진단하거나 향후 치료법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법으로 환자의 대퇴동맥 혹은 요골동맥으로 가는 다란 관을 삽입하고 조영제를 투여하여 심장혈관 촬영을 통해 검사 뿐 만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까지 이루어진다. 검사 및 시술시간은 고작 15~25분 소요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나며, 검사만 할 경우 4시간가량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속도 또한 빠르다. 하지만 돌연사의 위험은 비단 자가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종합검진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종합검진을 하고 있으나, 종합검진에서 행해지는 심장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는 심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참고자료일 뿐 심장질환은 물론 돌연사 위험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돌연사를 예방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검사 외에 혈관의 염증정도를 알아보는 혈액검사, CT 혈관 촬영, MRI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진단기술이 좋아져 CT 혈관촬영은 10초만 숨을 참고 심장혈관을 촬영하는 검사로서 바로 본인의 돌연사 위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사는 10년에서 20년 동안의 돌연사 위험도를 알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나이가 검사 결과에 따라 5년이나 10년, 아주 혈관이 건강한 사람은 20년 후이나 검사를 받으면 되므로 부담이 없다.



도움말 |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  
문의 | 외래 02) 920-6714, 6855

## 영화소개

# 시간여행자의 아내

돌아갈게...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기다릴게... 당신이 올 때까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 전세계 수천만 독자를 매혹시킨 원작소설을 영화화해



시간여행자의 아내 특히 그녀에게 사랑한 한 없는 그리움이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화가이자 세계적인 작가로 급부상한 오드리 니페네거 원작 영화 시간여행자의 아내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작가가 화가라서 인지 시간여행자의 아내 여주인공도 극중 화가로 나온다. 2004년 미국과 영국에서 출간된 시간여행자의 아내는 현재까지 약 450만부의 판매고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닷컴에서도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유전적인 장애로 시간여행을 하게된 헨리와 평생 그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클레어의 애틋하면서도 가슴 잔잔한 사랑이야기가 스크린에서 펼쳐진다.

원하지 않는 시간여행을 하는 숙명을 지닌 한 남자와 그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한 여자 사이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오드리 니페네거의 2003년산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대형스크린에 그려낸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사랑과 영혼>의 브루스 조엘 루빈이 각색을 담당하고 3,900만불의 제작비를 소요해 완성한 이 영화의 출연진으로는, <뮌헨>, <스타트렉: 더 비기닝>의 에릭 바나가 시간여행자 헨리 역을 맡았고, <나이트 플라이트>,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의 레이첼 맥아담스가 헨리를 사랑하는 클레어를 연기했으며, TV <밴드 오브 브러더즈>, <리틀 블랙 북>의 론 리빙스턴, <거침없이 짜내! 슛 템 업>, TV <터미널 시티(Terminal City)>의 제인 맥클린, <아미스타드>, <주라기 공원 2>의 알리스 하워드 등이 공연하고 있다. 연출은 <플라이트 플랜

과 <타투(Tattoo)>의 독일출신 감독 로베르트 슈벤트케가 담당했다. 북미 개봉에선 첫 주 2,988개 극장으로부터 개봉 첫 주말 3일동안 1,862만불의 수입을 벌어들이며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랭크되었다. 시카고 도서관 직원 헨리는 저주와 같은 '시간 여행 유전자'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어느날, 그에게 클레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찾아오는데, 그녀는 자신이 여섯살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헨리와 여러 번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헨리는 클레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클레어는 매번 갑자기 사라져서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헨리이지만, 그가 분명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굳게 믿는데...



